



2020년  
4월

우측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안산톡톡'을 볼 수 있습니다. ※ 안산톡톡(talktalk) : 톡톡(talktalk) 튀는 이야기(talk)가 가득한 톡톡(talktalk)한 소식지!



안산문화광장에 핀 매화

## 02-03 특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소독기 무상대여 안내, 관내 국민안심병원 현황  
부터 고려대 안산병원의 박대원 감염내과장 인터뷰가  
지 꼼꼼히 읽어보자.

## 12-13 기획

### 봄과 함께 걷는 대부해솔길

서해의 끝없는 갯벌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대부해솔길. 8개의 코스 중 취향에 맞는 코스를 고  
르는 재미도 쏠쏠하다.

## 09 안산, 안산인

### 안산의 Old and New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중인 신석기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된 신길선사유적공원, 조선시대 학자들의 핫 플  
레이스 청문당을 소개한다.

## 16 도시의 삶

### 봄맞이 대청소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요즘, 무기력함을 떨치고  
두껍고 무거운 옷과 이불을 정리하며 산뜻하게 봄을 맞  
이해보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 착한 임대료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문의 | 안산시 상생경제과(481-2696)

#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슬기로운 안산생활 정보

##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3월10일부터 코로나19가 안정될 때 까지 ▲중앙동 상가 지역 ▲상록수역 앞 ▲한대앞역 앞 ▲선부광장 ▲롯데백화점 앞 등 중심 상권 지역 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유료주차장 58개소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질서 확립과 시설 유지를 위해 노상 주차장을 제외한 주차관리원이 상주합니다. 주차장 위치 등 자세한 정보는 안산도시공사 공식홈페이지(www.ansanuc.net)를 참고하세요.



## 방역소독기 무상 대여

- 대상** 안산시민 누구나, 관내 사업장 관계자
- 대여장소**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
- 대여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 대여물품**
  - 소독분무기 20L(5대), 5~7L(5대), 2L(10대)
  - 소독약 무상 지급(개별 용기 지참)
- 대여방법** 당일 현장 선착순접수, 자체소독 후 반납 (최대 2시간)



## 도서관 임시휴관 중 대출서비스 안내

### 전자책

- 1인당 7권 이내 (대출기한:14일)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lib.ansan.go.kr) > [전자책 서비스]
- 스마트폰 앱(리브로피아) > 모바일 전자책



###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 1인당 월 5권 이내(대출기한:14일)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지역서점바로대출] > 도서 신청 > 승인 후 서점 방문
- 대동서적, 토닥토닥관촬아, 한가람/안산문고, 원곡서점
- 스마트도서관 (도서관회원증 필수)

- 1인당 2권 이내(대출기한:10일)
- 상록수역, 한대앞역, 중앙역, 초지역, 상록/단원구청

## 시청 민원실 야간/주말 운영 중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평일 오후 6시~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민원실 운영을 잠정 중단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일 및 무원민원발급기는 정상 운영)

**안산화폐 '다온' 10% 할인혜택 5월까지 연장**

##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 안내

- 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또는 대중국 수출입 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기업
- 지원** 업체당 5억원 이내, 이자차액(1.5~1.8%) 보전  
※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 참조
- 협약** 중소기업, 농협, 씨티,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국민, 산업, KEB하나, 신한은행
- 문의** 안산시 기업지원과(031-481-2841)

## 너와 나 사이의 안전한 2m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수칙

- 외출 및 외부 모임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해주세요
- 전화, SNS 등을 통해 지인과의 안부 묻기로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해주세요
- 택배물품, 배달음식 등은 문 앞에 두고 가도록 해주세요
- 다중이용시설(헬스장, 종교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세요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엘리베이터 버튼 등 공용시설을 자주 소독해주세요

## 코로나19 스트레스, 심리전문 상담가에게 '무료 상담'

확진자 및 가족 국가트라우마센터(02-2204-0001~2)  
격리자 및 일반인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 관내 의료기관 호흡기질환 진료를 위한 '국민안심병원'



구분	국민안심병원 A			국민안심병원 B	
유형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를 위해 호흡기 전용 외래를 설치한 병원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입원 진료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진료내용	호흡기환자의 진료 · 처방, X-레이 및 코로나19 검체 채취				
기관명	<b>사랑의 병원</b>	<b>단원병원</b>	<b>온누리병원</b>	<b>고대안산병원</b>	<b>안산근로복지공단</b>
소재지	상록구 예술광장로 69	단원구 원포공원1로 20	단원구 선부로 201	단원구 적금로 123	상록구 구룡로 87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30분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9시~오후 5시30분	오전 9시~오후 5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오전 9시~오후 12시30분	오전 9시~오후 1시	오전 9시~오후 1시
전화번호	031-439-3000	031-8040-5980	031-412-2202	1577-7516	031-500-1672~3
안심병원위치	후문	출입구	정문	응급실 앞	응급실 옆

※ 선별진료소 안내 : 상록수·단원보건소, 고대안산병원, 한도병원,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의료진 인터뷰>

# “개인위생 철저히·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전파 막아”



고려대 안산병원  
박대원 감염내과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안산시 의료기관 중 한 곳인 고려대 안산병원은 관내에서 가장 많은 진료 및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진 모두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정신없이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에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박대원(50) 감염내과장을 만나 현 상황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 스스로 지켜야 할 예방수칙 등을 들어봤다.

### Q. 자기소개 및 감염내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수련의,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2005년부터 안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남을 돕는 일이 맞아 현재 업무에 만족하고 있다. 감염내과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 다양한 미생물에 의한 감염질환을 진료하는 곳이다. 세균성 폐렴, 요로감염, 결핵, 에이즈 등 질병이 대표적이며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도 바이러스성 폐렴에 포함된다.



### Q.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이 비상이다. 고대안산병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간다. 처음 중국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최대한 격리 조치하는 방법이었던 정부 정책은 환자가 늘어나면서 완화정책으로 바뀌었다. 완화정책은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을 완화시켜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천천히 발생하도록 유도해 백신이나 치료약제 개발할 시간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초기 격리로 지역사회에 퍼지지 않게 하는 격리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환자 발생을 가능한 더디게 하는 대응법은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병원에서는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호흡기진료소를 마련해 호흡기 증상이 없는 비호흡기 환자와 섞이지 않게 하고 있고, 조기 환자 진단과 격리·치료로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추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외래로 토요일 오전까지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호흡기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고, 야간이나 토요일 오후에는 응급실로 오면 된다. 진단검사는 코나 목의 검체 검사, 폐렴증상이 보일 때에는 가래 검사와 X-레이 촬영을 진행해 5시간 정도 후 결과가 나온다.

### Q. 안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분들을 치료하고 있는가?

안산의 첫 확진 노부부 환자 두 분을 격리치료하고 있

다. 병원 내 별도의 건물에서 24시간 의료진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음식을 담은 용기부터 환자복, 배설물, 입원할 때 입고 오신 의복까지 철저히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두 분은 현재 증상이 호전돼 예후가 좋다.

### Q.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방역물품이 원활하지 않아서 걱정이다. 현재는 시에서 마스크나 보호 장구 지원을 떨어지지 않게 해주지만 언제 코로나19 종식이 이뤄질지 알 수 없고, 병원 자체적으로도 사방팔방 물품을 구매하려하지만 언제 물품을 보내오겠다는 확답을 받을 수 없다. 의료진의 안전이 보장돼야만 환자도 진료할 수 있고 나아가 코로나19 종식도 앞당길 수 있다.

### Q.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산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먼저 코로나19 전파 경로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2~3시간, 물체 표면에서 1~2일 독자 생존하므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아니더라도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는 분들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개개인 손 씻기 같은 간단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를 당부 드린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안산에 퍼지는 따뜻한 기부 소식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안산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시민·단체·기업의 기부 물결이 이어지며 훈훈한 소식이 전해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전합니다.



후원처	후원품목	수량	금액(상당)
닥터엘시아	손소독제	3,000개	300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손소독제	181개	200만원
안산시육상연맹회장/가족	현금		1,400만원
광양종합건설	손소독제	1,200개	660만원
AOLINE	마스크	500개	55만원
안산시 건축직공무원	현금		500만원
안산도시개발	손소독제	30,000개	5,000만원
농협 고향주부회	현금		287만원
안산제일교회	컵떡국떡	1,000개	200만원
(주)꿈이있는일터	의료용 방호복	100벌	
(유)청명	현금		1,000만원

후원처	후원품목	수량	금액(상당)
신안산대 AMP 총동문회	쌀10 kg	200포	516만원
(주)소싱뷰	마스크	5,000개	550만원
신반월새마을금고	쌀10·20kg	110포	539만원
굿앤베스트	캔디류	7,050개	3,373만원
(주)엑손알앤디	손세정제	1,000개	525만원
NH농협(군자·반월·안산)	쌀10 kg	1,004포	2,992만원
시립감골어린이집	현금		150만원
(주)안산타임스	컵라면	200개	168만원
(주)디아이오토	안산화폐 ‘다운’	60장	300만원
(주)한복문화연구소 한담	면마스크	200장	
(주)트리비스	기능성삼푸	200개	500만원

※ 지면상의 이유로 후원목록의 일부만 기재하였습니다.

# 안산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증상 자가격리 해제자도 검사 실시

## 전국 최초로 선제적 감염 차단 조치 시행...음성 판정자만 격리해제



안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 예산을 들여 학교 개학일 전까지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는 시민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자가격

리되는 시민에 대해 실시되며 최대 16만원의 진단 검사 비용은 모두 시가 부담한다.

관내 3번째 확진자 A(25·여)씨는 2월16일 대구 신천지교회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3월1일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했고 3월11일까지 능동모니터링 대상자로 관리 중이었다. A씨는 발열·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지만 능동모니터링 관리 중이었던 3월7일 진행된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최근 광주광역시에

서도 A씨와 비슷한 사례처럼 무증상 상태에서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선제적으로 모든 자가격리자에 대해 격리해제 이틀 전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양성으로 판정되면 자가격리 상태에서 즉시 격리병동으로 이송할 수 있게 돼 지역전파 가능성이 크게 차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음성 판정을 받는 자가격리자만 해제돼 시민 불안감은 보다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관내 학교가 개학하기 전까지 이 같은 조치를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코로나19 전파양상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그마한 전파 가능성도 모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자가격리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라며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추가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031-481-5941)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031-481-6360)

##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예방 총력 대응

###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및 방역물품 배부



안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요양원 등 집단 감염사례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예방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의 이용이 많은 노인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과 안내를 실시했으며 1일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 종사자와 출입자의 증상유무도 확인하고 있다.

3월16일 기준, 노인복지시설에 마스크 7만여 개와 손소독제 4천여 개를 배부해 어르신들과 시설 종사자들이 일상생활 중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수시로 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복지관, 경로당 등 공공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뤄졌으나 자체 방역에 한계가 있는 노인요양·양로시설, 주·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시설 등 민간운영시설 300개소에는 지난 3월13일 소독약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 방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왔다.

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설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시 차원에서 민간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해주 감사하다”며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지회·복지관 5곳, 경로당 258곳, 노인요양·양로시설 126곳과 주·야간보호센터 33곳 등 모두 451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10일부터 상황 진정 시까지 노인지회·복지관, 경로당 등 일부 노인복지시설을 임시 휴관조치하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지난 2월 29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문의 : 안산시 노인복지과(031-481-3353)

## ‘셀프백신’적극 지원...손소독제 · 거품비누 배부

### 어린이집에는 마스크·거품비누 지원



안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시민 스스로 예방하도록 손소독제와 거품비누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우선 3월9일 안산선(전철 4호선) 역사 8곳에서 ‘안산시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는 문구가 적힌 휴대용 손소독제 3천개를 출근길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상록수역·한대앞역·중앙역에는 각 500개씩, 나머지 역사에는 250~350개씩 배분해 시민 스스로 손 소독을 생활화하도록 지원했다.

이어 3월13일 출근길에는 안산선 8개 역사와 서해선 5개 역사 등 모두 13개소에서 손세정제 8천개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1곳당 많게는 1천200개, 적게는 300개씩 배분해 안산시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배부에는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한 안산시 공직자들이 직접 나섰으며, 다른 지자체로 이동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온 시민들의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에서 손소독제를 배부하게 됐다.

시는 또 관내 어린이집 468개소에 영유아용 손세정용 거품비누 1천750개와 일회용 마스크 5만500개를 지원했다. 3월20일까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마스크는 50~200개씩, 비누는 3~6개씩 지원해 어린이들이 ‘셀프백신’이자 ‘최고의 백신’으로 불리는 30초 이상 손 씻기를 습관화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상록구 관내 노래방, PC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손소독제 1천560개를 배분하는 한편, 소독약과 소독분무기 등 방역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시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문의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031-481-2726)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대구에 코로나19 의료진 지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 의료진 12명 파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이하 안산병원)은 일선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지역으로 의료진 12명을 파견해 의료공백 해소를 도왔다.

안산병원은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하자 지난 1월23일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의료진 모두가 확산 차단을 위해 힘써왔으며, 현재는 국민안심병원 유형 B로 지정돼 '국민안심외래진료소'를 1층에 조성해 코로나19 걱정 없는 진료 및 검사 환경을 통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최근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산하 대구병원, 창원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를 실시하게 되면서 의료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산병원 의료진 가운데 내과전문의 1명과 간호사 9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등 모두 12명이 3월13일 대구병원에 파견돼 3월23일까지 2주 동안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힘을 보탤다.

현재 안산병원은 입원환자의 감염원 차단을 위해 본관 1층 출입문을 제외한 전 출입문을 폐쇄하고 발열 및 여행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을 금지하고 병문안을 통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나서고 있다.

임호영 안산병원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격려하고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중심인 대구의 의료진 피로도 극복을 위해 인력지원이 도움이 될 것이며, 아울러 안산시에서도 확산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진료 및 검사 실적은 3월 15일까지 각각 280건, 139건이다.

문의 :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031-481-5941)

## 안산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3개월간 감면 1만6천여 개 사업장 대상... 최대 100% 감면



안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3개월 동안 최대 전액 감면해준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하며 일반용 100톤 이상 사업장과 대중탕용, 전용공업용(300인 이상 대기업을 제외)은 50%, 일반용 100톤 미만 사업장은 요금 전액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요금감면은 3월 부과 요금을 시작으로 5월분 요금까지 이뤄지며 이 기간 동안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장, 자영업자 등 모두 1만7천여 사업장이 모두 99억 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수도행정과(031-481-3677)

## 안산시 강소기업 유비(주), '살균 로봇' 지원 짧은 시간 내 대량 소독...바이러스 99.99% 박멸



유비(주)가 UV LED 기술을 이용한 '살균 로봇'을 투입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살균 로봇은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자외선을 이용한 빛으로 안전하게 살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고집적 LED를 활용

해 자외선을 발현함으로써 상시 소독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 내 대량 소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30초 이내에 인체에 유해한 병원체 뿐 아니라 코로나 유형의 바이러스를 99.99% 살균할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유비(주)는 경기도에 살균 로봇 5대 무상대여를 시작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안산상록경찰서 등을 돌며 로봇을 이용한 코로나19 예방 살균소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와 협조해 코로나19 확산 방역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유비(주)는 16W급 고출력 UV LED 경화 시스템 해외사업화라는 연구과제를 생산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고대병원과 같이 수행하면서 제품을 개발, 공기기관으로부터 살균 로봇의 결핵균 살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AI(인공지능)와 UV LED 기술을 융합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기업이다.

강용훈 유비(주) 대표는 "앞으로도 안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군부대, 관내기업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감염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산업진흥과(031-481-3517)

## 안산시 공직자, 청도군 농가 돕기 팔 걷고 나섰다 청도산 한재미나리 구매 특판 행사 개최



청도군 우수농산물 중 하나인 한재미나리는 400여 개의 지역 농가에서 연 2천 톤 이상 생산된다. 한재미나리 재배농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재미나리축제'가 무산돼 지역 방문객과 택배주문까지 감소하는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3월17일 시청 광장에서 열린 청도군 특산물 한재미나리 특판 행사에서는 시 직원 326명이 613.5kg, 일반 시민 등이 400kg 이상을 구입하는 등 모두 900여만 원이 판매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는 등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도군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준 시민들과 직원들이 자랑스롭다"며 "온 국민이 세월호의 아픔을 겪으면서 함께 이겨낸 단합된 힘을 발판삼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말했다.

시는 6년 전에도 세월호의 아픔을 겪으면서 함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도군의 농특산물 소비촉진 운동에 앞장서 진도군민들에게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청도군 한재미나리 판로 지원을 통해 지역 농가와 상생 행보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청도 특산물 반건시와 감말랭이 285만원 어치를 구입해 보건소 등 코로나19 비상근무 부서에 나눠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았다.

문의 : 안산시 농업정책과(031-481-2315)

## 안산에서 즐기는 해양스포츠... '2020 안산해양레저스포츠 교실' 운영 해양교육부터 레포트 체험까지 '모두 무료로 즐겨요'

해양여건이 우수한 대부도 탄도항과 안산천 일원에서 학생 및 시민들에게 해양레포츠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안산해양아카데미가 올해 11월까지 운영된다.

안산시는 2018년까지 유료로 운영된 해양아카데미를 지난해부터 무료로 전환, '2020 안산 방문의 해'를 맞은 올해도 시민들이 쉽게 해양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안산천 해양레저스포츠 교실

올해는 시내에서 접근이 쉬운 안산천 일원에서 시범 운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이색 수상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는 SUP보드(Stand Up Paddle board), 래프팅(고무보트를 타고 급류를 헤쳐 나가는 레포츠)을 통한 협동심 고취와 인명 구조, 덩기요트(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1인용 소형 요트)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중앙도서관과 호원초등학교 인근 안산천에서 매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사전에 전화 예약을 해야 한다.

### 탄도항 해양아카데미 주요프로그램

요트를 타고 탄도에서 제부도까지 바다 위를 세일링하는 요트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세일링요트는 가족, 친구, 연인, 단체, 모임 등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요트를 타고 바다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양레저스포츠를 이해하고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키워줄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되며 5인 이상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체험할 수 있다.

요트 입문자 교실은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된다. 기초와 심화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상에서 필요한 조종술을 배울 수 있으며 8명 이상 사전에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대부도 어촌민속박물관에서 전문해설사의 설명으로 해양생태, 환경이해와 어촌계의 발달과 역사, 바다의 기능과 역할, 바다에 사는 동물과 식물에 관한 특화교육을 실시하는



안산 해양문화체험 교실도 운영된다. 사전 전화 예약으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운영되며 20인 이상 단체 접수를 해야 한다.

지난 2019년 해양아카데미는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요트체험(3천449명), 문화탐방(709명) 및 수상안전교육(35명) 등 4천193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2020년 안산해양아카데미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접수를 시작하며 격주로 월·화요일과 명절은 휴무다.

요트체험 : 인터넷 접수(<http://www.ansanyacht.com>)

요트체험 외 체험 프로그램 / 안산천 해양레저스포츠 교실

: 전화 접수(070-4110-1166)



문의 : 안산시 해양수산물(031-481-3695)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 동네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행복마을관리소,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행복지킴이들이 늘 동네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자식이 곁에 있는 거 같아 좋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행복지킴이들이 매일 동네를 돌러보며 주민편의를 돌보면서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어르신들은 무거운 짐을 들거나 형광등을 교체하는 소소한 일들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고 워킹맘들은 아이 등·하교를 부탁할 수 있는 든든한 이웃이 생겼다. 또한 동네 골목이 더 깨끗해지고 안전해졌다.

상록구 일동과 월피동에 설치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마을의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거점공간이다. 고령화와 함께 공공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아동·노인 돌봄, 주거환경 개선, 안전관리 등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입된 일종의 동네관리소다. 마을마다 10명의 행복지킴이들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교대로 동네를 돌며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지원한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해 주거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 안산시는 '2019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우수 추진시·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동네에서 생활하며 도움이 필요하거나 불편한 문제가 생길 때 언제든지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다. 아동 등·하교, 홀몸 노인 돌봄, 생활 공구 대여, 취약계층의 간단한 집수리, 안전순찰 등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리소마다 특색사업도 진행한다. 광덕 행복마을관리소는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일동 행복마을관리소는 에너지 관리 캠페인과 마을 골목정원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상점가를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펼쳐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일동 행복마을관리소의 이해정 팀장은 “동네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생기면서 수혜를 받



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르신들은 전화하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곁에 있어 주는 자체로도 고맙게 생각하며 지킴이들은 자식처럼 어머니 손잡아드리고 이야기 나누는 일, 본인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자체로 큰 존재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이웃이 늘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행복마을관리소의 할 일은 다했다는 생각이 든다. 행복마을관리소가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특색있게 만들어내면서 실질적인 복지를 실행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마음으로 의지하며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곳, 각 동네마다 그런 공간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상반기 예산을 확보해 오는 4월, 단원구에 와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문의 : 광덕 행복마을관리소(031-481-9876) / 일동 행복마을관리소(031-438-9876)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hanmail.net

## INTERVIEW

## “안산시체육회 민선 시대 기틀 마련하고 체육 발전 힘쓰겠다!”

### 배정완 (첫 민선 안산시체육회장)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안산시민의 체력증진, 여가선용,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활동해 온 안산시체육회의 초대 민선 회장으로 배정완 회장이 지난 2월20일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됐다.

앞으로 3년 간 안산시체육회를 이끌어 갈 배정완 신임 회장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 Q.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리며 어떤 계기로 도전했는지 궁금하다.

안산시생활체육테니스협회장, 안산YMCA 이사와 사회체육위원장으로 일하며 안산시 체육발전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최근 안산시체육회도 민선 시대를 만들어가기로 결정했고, 그 취지에 맞게 체육회의 새로운 방향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기구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틀을 잡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회장직에 도전했다.

#### Q. 안산시체육회라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기구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산시체육회는 52개 종목단체의 회원들이 등록돼 있고 25개 동체육회가 산하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는 학교 체육(운동부)도 소속돼 있고, 사회인들을 위한 클럽 운동부도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안산시 체육에 관한 부분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체육 활동 모든 부분이 활성화돼 골고루 역량 있는 운동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체육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Q. 첫 민선회장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까지는 안산시장이 회장을 겸직했고 공적기관처럼 운영 예산도 시 예산으로 운영해왔다. 체육회는 그 역사도 깊고 산하단체가 80여 개인 방대한 조직이자 큰 인력풀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혹여나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는 폐단을 줄이고자 민선으로 가게된 것이다. 그런 취지로 체육회를 잘 운영해보고자 한다.

#### Q. 신임 체육회장으로서 특별한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체육회가 민선으로 독자적인 운영이 잘되려면 사단

법인이 돼야 한다. 사단 법인이 제 역할 하려면 재정적 독립이 중요하다. 당장은 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

는 현실이지만 앞으로는 체육진흥자금 등 체육회 자체 자산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그리고 안산시 체육회관 건립, 종목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확대, 동체육회 위상 제고 등 안산시 체육 발전을 위한 폭넓은 활동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겠다.

#### Q. 안산 시민들에게 안산시체육회장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체육회가 민선 체육회로 자리매김하려면 아직 장애요소들이 많다. 이런 부분을 우리 안산 체육인들과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고 성원해 주셔야 제대로 된 민간 체육회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문의 : 안산시체육회(031-482-2821)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 INTERVIEW

## “지역 향토문화 계승발전이라는 엄중한 사명감으로 임하겠습니다”

### 이한진 (제10대 안산문화원장)

안산문화원은 1984년 창립돼 안산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토사 조사·연구·기록물 사업을 비롯해 안산향토사박물관 운영, 시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 등 중요한 기능도 갖고 있다. 10대 안산문화원장으로 올해 취임한 이한진 원장을 만나 이야기 나눴다.

#### Q. 안산문화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어떤 계기로 이 역할을 수행하시게 됐는지 궁금하다.

5대 째 안산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 농·어업 중심이었던 과거에서부터 산업도시로 성장하기까지 안산의 역사를 함께 해왔다. 안산문화원 이사와 부원장직으로 오랫동안 문화원의 성장을 도우며 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새로운 청사진에 대한 고민해왔다.

문화원장직은 지역의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이라는 엄중한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자리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기는 하나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안산문화원 가족 분들과 함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이다.

#### Q. 안산문화원이 어떤 곳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산문화원은 향토유물 수집을 통해 안산향토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박물관을 찾는 많은 관람객들에게 안산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문화학교라는 시민 대상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민요, 사물놀이, 서예 등 26개 강좌를 개설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안산역사문화탐방 아카데미 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 중 ‘내 고장 알기’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은 교육프로그램이다. 지난해 6천여 명에 이르는 학생이 참여했고, 올해도 3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Q. 안산은 다양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곳인데, 그런 의미에서 문화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안산시 하면 반월공단, 원곡동 다문화거리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어느 도시보다도 역사가 깊고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지역이다. 선사시대유적을 비롯해 실학의 대가인 성호 이익 선생, 김홍도, 강세황, 최용신

등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현재의 안산시로 변모했

고 여러 세대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삶과 문화를 만들어내며 지금의 안산 문화를 만들어냈다. 안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의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원의 특별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Q. 안산시민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산문화원은 안산향토문화의 창달과 계승·발전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향상시킬 것이다. 더불어 전국적으로는 안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자 노력할 것이다. 문화원에서 열리는 많은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안산문화원(031-415-0041)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 안산시 청년 누구나 ‘마음먹은 대로’... 청년공간 상상대로 문 열어 ‘청년들이 말하는 대로, 상상한대로!’ 비전의 청년주체 공간

취업고민, 연애고민, 주거문제까지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은 청년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면 누구나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안산시 청년공간 상상대로’가 문을 열었다. 경기도와 안산시 매칭 사업으로 조성됐으며 정식명칭은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로 지어졌지만, 지역 청년들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안산시 청년공간 상상대로’(상상대로)라는 명칭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안산에는 청년 창업지원 등 특수한 목적성을 갖고 있거나, 청년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조성됐지만 소규모인데다가 청년 누구나 쉽게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상상대로는 안산시 총 인구 중 약 33%, 24만 여명을 차지하는 청년(15-39세)을 위해 ‘안산청년들이 말하는 대로, 상상한대로!’ 라는 비전과 청년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목표를 갖고 안산시 제1호 청년공간으로 조성됐다.

안산 청년들의 쉼터이자 안식처로서 학생부터 직장인, 휴학생, 취업준비생, 육아휴직 중인 청년, 미혼, 기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층 공간은 주변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도록 카페와 책방으로 채워졌고 2층은 대회의실과 강당, 소규모 모임을 위한 세미나실이, 지하에는 뮤지컬과 연극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습실로 꾸며졌다. 카페와 책방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상상대로는 양질의 강의와 프로그램을 찾아 더 이상 서울이나 인근 지역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알찬 강의와 프로그램을 꼼꼼히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이름만 들어도 호기심과 기대가 생긴다. 생각한대로 운영, 상상한대로 공간 활성화, 마음먹은 대로 지원, 원하는 대로 교육, 신나는 대로 교류, 묻는 대로 조사 등 6개 분야 사업으로 진행된다.

원하는 대로 교육사업 ‘안산청년대학 00학과’만 살펴봐도 학자금 대출, 주택자금 대출, 경제적 또는 정서적 등 다양한 사유의 부채로 고민인 청년들을 위해 청년대학 부채학과, 육아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청년대학 육아학과, ‘나 혼자 산다’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대학 주거학과 등 청년이면 누구나 고민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 학과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상상대로는 지역 청년의 수요를 파악하고 청년 당사자가 기획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이끌고 참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래서 청년 당사자의 고민과 욕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청년들이 상상대로 센터의 운영도 맡고 있다. 안산시 청년공간 상상대로 문지원 센터장은 2014년부터 안산청년네트워크와 청년정책제안 활동을 통해 청년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문지원 센터장은 “주변에 관심도 많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스스로 나서서 모임을 만들기엔 소극적이고, 친목을 위해 소모임을 만드는 것도 소모임 어플을 통해 진행 할 만큼 청년들이 개별화 돼가고 있다. 노동조합에 모이는 이들이 같은 고민을 갖고 모임듯 상상대로가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공동체성과 소속감, 사회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청년들의 유대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잘 자라는 나무처럼 청년커뮤니티가 상상대로에서,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상대로 위치는 안산운전면허시험장,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인근으로 지역의 특징을 살려 지역주민과 인근학교 교사, 지역청년들로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안산지역 전체 청년뿐만 아니라 와동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상대로의 개소식은 3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보류됐지만 공간 이용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승용차를 이용할 시 주차는 안산운전면허시험장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 : 안산시 청년공간 상상대로(031-492-203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온 가족이 함께 동심으로! 제8회 안산시 전국 가족창작동요대회

### ‘안산’ 주제 창작 동요 참가팀 가산점 부여, 4월20일까지 참가팀 모집

제98회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안산시 전국 가족창작동요대회가 안산 호수공원 중앙무대에서 5월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스토리예술연합회가 주관하는 전국 가족창작동요대회는 올해로 8회째 안산에서 진행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사)한국스토리예술연합회는 가족창작동요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는데 어린이는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4월 10일에서 20일까지며 참가팀명, 구성원, 팀 대표 연락처, 참가 선곡 등이 기재된 참가신청서와 악보, 음원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우수한 참가자는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15만원, 인기상 10만원의 상이 주어진다.

(사)한국스토리예술연합회 관계자는 “대부분 동요대회는 지역별로 존재하는데 우리 안산은 특별히 ‘가족’이 함께 하는 동요대회를 진행하는 것이 차별화됐다”며 “가요를 많이 부르는 요즘이지만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동요를 부르며 동심의 마음을 돌이켜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가족 동요대회를 추진했고 어느새 8회가 됐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가족단위로 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대회는 계속 발전해왔고 올해는 특별히 안산을 주제로 만든 창작 동요로 참가하면 가산점이 주어진다”며 “가족들이 부르는 동요를 통해 우리 안산을 널리 알리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창작 동요가 아니어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기존에 있는 동요를 불러도 되며, 누



구나 평소 즐겨 부르던 동요가 있다면 누구든 가족단위로 참여가능하다.

관계자는 또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대부분이 취소되고 있다. 5월 행사시기에 아직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시기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방침에 따라 예정이라 일시나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문의 : (사)한국스토리예술연합회(031-486-0004)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 안산의 Old and New, 오래된 것 새롭게 보기

## 안녕~ 선사인! 신석기인의 집으로 가자 '신길선사유적공원'

내가 사는 안산지역에 대체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순간 혹은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그 해답을 찾아 나설 의욕이 생긴다면 문자가 없던 선사시대의 원주민들이 모여 살던 신길동으로 가보자.

'신길선사유적공원'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위치한 안산지역 최초의 주거지로 신석기 시대(기원전 3500년) 한반도 중서부 지방의 대표적인 주거지군이다. 2002년 5월 신길동 택지개발 사업 추진 중 유물이 처음으로 발견됐고 23기의 움집과 백자제기 외 486종 590점의 출토유물을 발굴되었다. 2010년 연구보존을 위하여 신길택지 개발지구 내 약 1만5천여㎡ 면적으로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하여 2013년 완공됐다. 신길동에서 출토된 신석기 빗살무늬토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서울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주거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존가치가 높아 2016년 안산시 향토유적 제26호로 지정되었다.

공원입구에 다다르면 종합안내 표지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군데군데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신석기인의 모습과 동물 모형들 사이에 신석기인의 집터와 움집골격 형태, 완전한 움집형태로 나눠 복원된 여러 개의 움집들이

자리 잡고 있다. 유물발굴당시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빗살무늬토기, 갈돌, 갈판 등 출토당시 모습과 위치를 볼 수 있는 5호 주거지를, 신석기인이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궁금하다면 신석기마을의 모델하우스격인 골격형태의 움집을 골라서 구경할 수 있다.

초기에는 유적공원의 관리가 소홀하여 야간에 부랑자의 쉼터나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변질 될 것이 우려되었으나 안산시와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현재는 지붕 없는 박물관인 안산 에코뮤지엄으로 탈바꿈 됐다. 2013년 신길셋별작은도서관의 자원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역사 체험학습안내자 모임(석기마녀)'이 결성되고 유적지 살리기 운동과 지역아동들을 위한 체험교육을 시작하면서 역사유적공원 활성화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신길마을음악회, 역사 유적 체험학습 프로그램, 신석기마을축제를 해마다 개최하며 살아있는 역사체험이 가능한 유적공원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초등학교 대상의 '석기마녀와 역사탐험대' 체험 프로그램 신청은 단원구 신길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536번지  
체험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 : 신길동행정복지센터(031-481-6675)



등자쇠



거미와 용 문양 기와

## 조선시대로의 시간여행, 안산 고택 '청문당'

안산의 가장 오래된 전통가옥 청문당. 조선시대 중기의 사대부 가옥으로 1만권의 서적이 보관되어 있던 곳이며 조선 후기 문예부흥을 이끌던 학문과 예술의 교류장소였다.

2000년 3월,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4호로 지정된 청문당은 선조가 정정옹주를 시집보내며 하사한 사패지에 진주 유씨 16대 손인 유시회(1562~1635)가 처음 지었으며 초기 5천여 평의 대지 위에는 여러 부속건물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고 한다. 'ㄱ'자의 안채와 'ㄷ'자형사랑채가 마주보고 있으며 조선후기에 지어진 'ㄱ'자형의 바깥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트인 ㄷ자형을 이루는 구조다.

경기지역의 민가와 사대부가의 형식이 절충된 구성을 보여주는 청문당은 조선 후기 시·서·화의 삼절로 추앙을 받은 표암 강세황과 그의 제자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탄생하고 성장한 곳이며 실학자 성호이익과 민족사학자 안정복 외에도 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의 교류 장소이자 학문적인 기반이 된 곳이다.

400년이 넘는 고택, 청문당에서 관람객은 보물찾기를 하듯이 옛날 모습 그대로의 굴뚝과 왕가에서만 쓰던 용 문양, 부를 기원하는 거미 문양의 기와들과 등자쇠\* 등을 찾아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안산시는 몇 년간 꾸준히 조선시대 선비들의 복날 풍습을 재현한 '안산의 복날', '청문당 북 콘서트', '고택음악회', 1박2일 한옥스테이 체험 '헬로 청문당', '안산역사문화탐방 아카데미' 등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

다. 2020년에도 관내 초등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안산 역사문화탐방 아카데미'와 전세대가 참여 가능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을 계획 중에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등이 임시휴관인 요즘에도 청문당은 평일 9시~오후 3시까지 개방이 되어 관람객의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이 문화예술을 교류하며 백성들과 함께하려 노력했던 소통의 장소 청문당은 조선 후기 최고의 핫 플레이스였으며 지금도 안산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지역 문화유산이다. 근처를 지나는 고속도로와 주변의 공장건물 틈에서 곳곳이 조선시대와 현재 안산을 이어주고 있는 청문당은 21세기를 사는 안산시민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등자쇠\* : 모임이나 행사 시 문을 들어 올려 방과 마루를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안과 밖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조상의 지혜.

### 관람안내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77(부곡동)  
개장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3시  
(주말·공휴일 휴무)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3438)  
김선영 명예기자\_rimmom@korea.com



## 안산시의 상쾌하고 맑은 공기를 위한 미세먼지 대처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과 재정투입으로 2016년 이후 안산시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 악화로 봄과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의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mu\text{m}$ )이하인 PM10(미세먼지)와 2.5 $\mu\text{m}$ 보다 작은 PM2.5(초미세먼지)로 나뉜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을수록 코, 구강, 기관지에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며 각종 중금속과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를 안산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 미세먼지 발생 요인 감소를 위한 노력

- 반월·시화 산단 환경배출업소 관리 강화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 염색단지 환경방지시설 개선 지원
- 공사장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시민 지키기

-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어린이집, 경로당 등)
-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및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1대 당 20만원)
- 미세먼지 차단 창문 필터 설치 지원(경로당)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 미세먼지 없는 도로 만들기

- 도로 살수차, 소형 골목길 청소차 운영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분진·살수 차량 확대 운영 (차량통행 많은 구간 중점 운행 : 중앙대로, 삼일로 등)
- 공사장 주변 도로 토사 유출 여부 확인

### 미세먼지 관련 정보 제공

- 대기오염 측정망, 알림 전광판 운영
- 미세먼지 농도 표시 신호등 설치
- 자체 미세먼지 대응 요령 책자·웹툰 제작 및 배포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캠페인 추진

###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교육 확대

- 미세먼지 없는 안산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회
- 미세먼지 없는 안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대응 교육
- 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미세먼지 방문 교육



미세먼지 신호등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원 안내

###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 ◆ 지원대수 : 승용차 30대
- ◆ 지원금액 : 1대 당 3천500만원  
※ 경기 타시군보다 250만원 추가 지원
- ◆ 저감효과 : 미세먼지 오염원 배출 '0'  
(소량 수증기만 배출)  
※ 1시간 운행기준 26.9kg의 공기 정화
- ◆ 지원대상 : 공고일 전일 기준 안산시 거주자
- ◆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 수령 후 2년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 ◆ 지원대수 : 승용차 249대, 화물차 19대  
이륜차 30대, 전기버스 3대
- ◆ 지원금액  
- 승용차 : 1대 당 최대 1천420만원  
※ 경기 타시군보다 100만원 추가 지원  
- 화물차 : 1대 당 최대 2천700만원  
- 이륜차 : 1대 당 평균 230만원  
- 전기버스 : 1대 당 1억6천만원
- ◆ 지원대상 : 공고일 전일 기준 안산시 거주자·법인
- ◆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 수령 후 2년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구입 지원

- ◆ 지원대수 : 51대
- ◆ 지원금액 : 1대 당 약 500만원
- ◆ 지원대상 : 2011년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중 15인승 이하 경유차 폐차 후 동일 용도의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소유자  
(※ 조기 폐차, 저감 사업 보조금 수령자는 지원 불가)

### 천연가스 버스 구입 지원

- ◆ 지원대수 : 대형 버스 80대
- ◆ 지원금액 : 1대 당 1천200만원
- ◆ 지원대상 : 관내 버스운송사업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구입 지원

- ◆ 지원대수 : 15대
- ◆ 지원금액  
- 3.5t미만(최대 300만원) : 폐차 보조금 기본 210만원 지급 / 신차 구매 시 90만원 추가 지급  
- 3.5t이상(최대 3천만원) : 폐차 보조금 100% 지급 / 신차 구매 시 추가 200% 지급
- ◆ 지원대상 : 2005년 이전 엔진 제작 차량 (5등급 경유자동차)

기간 : 예산 소진 시 까지  
문의 :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894)

#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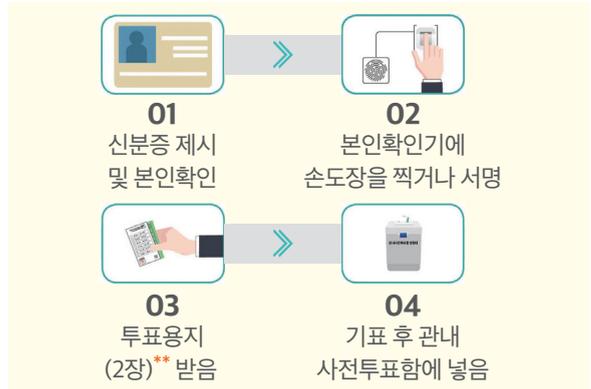
## 사전투표

4.10.(금)~4.11.(토)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관내·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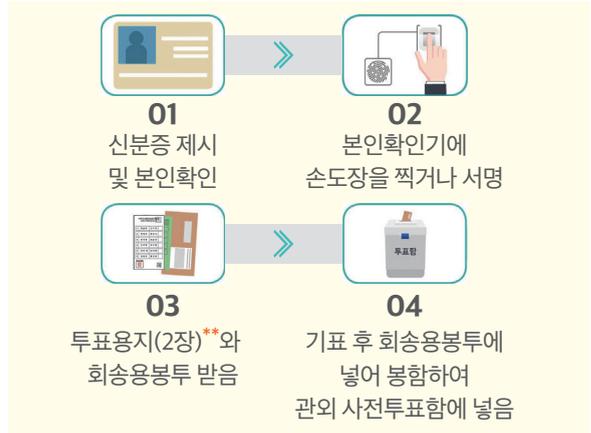
### I 투표절차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에 2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

관외선거인 :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선거인



### I 투표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투표할 때 필요한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후보자 정보, 이렇게 확인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 방문하기

· 정당·후보자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선거벽보 살펴보기

·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경력, 학력,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 등의 장소에 4.3.(금)까지 게시됩니다.

### 선거공보 꼼꼼히 확인하기

·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책과 공약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지역구 후보자 선거공보의 경우, 두 번째의 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 인적사항과 재산 및 병역·납세·전과기록 등의 상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모든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함께 4.5.(일)까지 발송됩니다.

## 선거일 투표

4.15.(수) 오전 6시~오후 6시

### I 투표절차



\*\*재·보궐선거가 동시 실시되는 일부 지역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추가교부

해당되는 지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I 투표장소

각 가정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주의하세요!

- ⊗ 선거인은 선거마다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 투표 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 투표소 내에서는 사진 촬영 등이 금지되며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정책과 공약, 놓치지 마세요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 확인하기

- 정당의 10대 정책,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언론기사 빅데이터에서 도출된 정책공약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가 희망하는 공약을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토론회 시청하기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비교·검증하여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토론주간(4.2.~4.9.)에 집중 개최되며 방송사와 시간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debat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tv.debates.go.kr
- ▶ 유튜브 '중앙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시무일정

- 3월 26(목)부터 3월 27일(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4월 1(수)부터 4월 6일(월)까지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4월 2(목)  
**선거기간개시일**
- 4월 2일(목)부터 4월 14일(화)까지  
**선거운동기간**
- 4월 3일(금)  
**선거인명부 확정**
- 4월 10(금)부터 4월 11(토)까지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4월 15(수)  
**투표**  
(당일 오전 6시~오후 6시)  
**개표**  
(투표종료 후 즉시)

행복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선거





## 달달한 재능기부를 실천하는 빵집아저씨들 협동조합

### “가족들에게 좋은 음식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켜온 동네빵집”

전국 어디를 가도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익숙해진 풍경 속에서 자신만의 이름을 걸고 여전히 골목을 지키고 있는 동네빵집들을 보면 갓 구워낸 빵처럼 달콤한 향과 온기가 느껴져 반가움이 앞선다.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동네빵집들, 경기도 최초 제빵협동조합인 ‘빵집아저씨들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빵만큼 달달한 재능기부를 해오고 있는 안산 빵집아저씨들의 이야기를 김기철(솔로몬과자점 대표) 빵집아저씨들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들어보았다. 김 이사장은 24년간 같은자리에서 동네빵집을 운영해오고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한창 확장되면서 동네빵집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자리를 잃어갈 때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로 기술도 공유하고 모인 김에 동네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같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좋은 일도 해보자고 ‘빵집아저씨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됐다.

한 가게 당 200개씩 빵을 만들어 매달 시설에 기부하고 케이크 재료를 준비한 후 복지시설로 가서 케이크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져가서 가족과 함께 먹을 생각에 행복해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보람을 갖고 힘들어도 계속 하게 되더라.

재능기부 봉사활동은 10년째 해왔고 안산의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모두 진행한 것 같다. 그러던 중에도 점점 문을 닫는 곳들이 많아져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방법을 찾던 중 뜻이 맞는 회원들과 7년 전 빵집아저씨들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지금은 처음보다 회원 수가 많이 줄었다. 동네빵집 경영이 어려우니 아예 다른 직업으로 옮긴 이들이 많다.

빵집경력 10년에서 20년이 넘는 베테랑들이 작은 빵집에서 만들기 어려웠던 제품들을 공동·대량생산하기 위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고 협동조합으로 뭉쳤다. 종일 각자 빵집을 운영하고 영업 후 매일 저녁이면 모여 늦게 까지 제품개발을 하느라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협동조합의 설립 철학을 지켜가며 운영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김기철 솔로몬과자점 대표

이제는 그런 점이 강점으로 입소문이 나서 기업들과 MOU도 체결해 현재 백화점, 유명 커피전문점 브랜드에 납품하고 있다. 빵집아저씨들 브랜드로 협동조합이 만든 빵이 전국적으로 유통된다. 마카롱, 똥카롱이 대표 상품이다.

현재 안산을 포함하여 수도권에 제빵협동조합이 3곳이 있는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협업하고 있다. 가족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당연하듯 그 마음으로 빵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마침 빵집에 들어온 한 손님에게 동네빵집을 애용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어릴 때부터 이 빵집이 있었어요.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우리 동네를 지키고 있죠. 한 곳에서 20년 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 설명된 거 아닐까요.”라고 되묻는 주인의 얼굴에서 빵집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느껴졌다.

빵집아저씨들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느라 바쁜 와중에 올해도 짬을 내서 희망하는 곳에 봉사활동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문의 : 빵집아저씨들 협동조합(031-484-0415)  
송민아 명예기자 junseo1000@hanmail.net



##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해요

### ‘엄마사랑’, ‘한잎사랑’ 따뜻한 봉사단체



25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따뜻한 봉사단체가 있다. 장애인, 독거노인,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엄마사랑’봉사단이다. ‘엄마사랑’ 봉사단은 안산시에서 하는 각종 장애인 행사 도움과 평화의 집 빨래봉사, 그룹 홈 행사, 상록수역 무료급식, 청소년 주먹밥 만들기, 재난·재해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7년 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준 ‘한잎사랑’ 봉사단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은 뒤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는다. 교육 후 각자 원하는 지방으로 배정이 되는데 ‘한잎사랑’ 봉사 단체는 안산에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1대1 멘토 역할을 한다. 살 집을 청소해 주고 관공서, 시장, 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등 삶의 길잡이가 돼 준다.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사랑으로 많이 보듬고 나눠 주자는 의미의 ‘엄마사랑’과 남과 북이 빨리 통일이 되어 한마음 한뜻이 되자는 의미를 담아 ‘한잎사랑’이라는 봉사단체 이름을 지었다. 큰 행사 때는 두 단체가 함께 활동한다. 두 단체의 회장을 한 사람이 맡고 있

기 때문에 봉사활동의 영역이 넓고 시너지 효과도 훨씬 크다. 약 50명의 회원이 함께 활동하는 두 단체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엄마사랑)과 넷째 주 목요일(한잎사랑)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봉사 일정을 점검하며 계획을 세운다.

봉사하면서 느끼는 소감도 다양하다. 대부도 소망의집 목욕봉사 때 만난 어르신들은 치매가 있는데도 봉사자들을 기억하고 반겨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한다. 땀을 흘리고 온 몸이 젖는 일이지만 목욕 봉사가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말한다. 반찬배달 봉사자들에게 고맙다며 500원을 한사코 건넸던, 눈이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의 마음에 눈물이 난적도 있었다. 바자회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이 큰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돕고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치르기도 했다. 800포기의 배추를 직접 심고 길러서 김장해 필요한 곳에 나뉘던 기쁨 등 봉사의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보람된 일이라고 말한다.

서경숙 회장은 “자원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첫걸음이 어려운거죠. 봉사는 저를 키워주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찾아주세요. 행복이 더 많아지실 겁니다.”라며 활짝 웃는다.

25년이란 세월이 흐른 만큼 ‘엄마사랑’ 회원들도 나이를 먹었다. 몸으로 하는 봉사가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마음이 먼저 가 있는 봉사자들. 북한이탈주민과의 멘토링이 끝나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봉사자들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감사하다. 잘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봉사에 참석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회원들은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하는 봉사자들의 섬김이 넘쳐나는 더욱 따뜻한 안산을 기대해 본다.

문의 : 엄마사랑·한잎사랑(010-8758-0738)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신중년 일자리 시리즈

## “반려식물 키우며 건강도 얻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식물을 매개로 외롭고 힘든 분들 돕는 원예치료사

꽃과 식물을 좋아하고 이웃에게 관심이 많았던 김미승(55·사동)씨는 오랜 경력단절을 딛고 새 일을 찾았다. 식물을 심고 가꾸는 원예활동으로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원예치료사 일이다. 원예치료사는 식물과 원예 작업, 정원조경 등을 활용해 사람들의 신체·정서·사회·인지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을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식물을 정성으로 보살피고, 가꾸고 돌보는 과정을 통해 기쁨과 안정감을 갖도록 돕는 원예치료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되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수요가 늘고 있다.

이 일을 하고부터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는 김미승 씨. 그의 일하는 즐거움과 일이 주는 행복감을 함께 느껴보자.

### Q. 원예치료사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원예 관리자 수업을 통해서다. 10년 넘게 육아·가사에만 집중하다가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 새로운 일이 하고 싶어졌다. 그러던 차에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원예 관리자 강좌 수강생 모집 공고를 보고 망설이지 않고 바로 등록했다. 꽃을 좋아하고 식물관련 일을 하고 싶어서였다. 담당 이윤자 교수는 원예활동이 직업이 될 수 있다며 원예치료사의 전망·자격·활동영역 등에 대해 알려주고 이후 수요처까지 확보해줬다.

### Q. 원예치료사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밟았나?

여성비전센터 원예 관리 강좌를 상·하반기, 두 학기 수강했다. 원예 관리를 배우기 전에도 꽃꽂이며 플로리스트 자격 공부는 했다. 이후 꽃예술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원예예술치료전문지도사’ 10주 양성과정을 마쳤고 (사)한국원예디자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원예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 Q. 현재 원예치료사로서 하는 활동을 소개하면?

학교·복지관·경로당·수목원 등지로 수업을 나간다. 대상에 따라 식물심기, 작은 꽃바구니



니 만들기 등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 구상부터 재료선정, 구매까지 수업의 전 과정을 기획한다. 프로그램은 수요처에 따라 프로그램당 8주~16주차로 운영되고 강사료는 1회당 약 8만원이다.

### Q. 이 일의 어려운 점은?

살아있는 생물을 준비하고 운반하는 일이 조심스럽다. 토기 화분이라도 수업재료에 포함되면 부피감에 무게감까지 더해져 힘이 든다. 또한 원예치료는 식물을 매개로 심신이 약한 사람의 건강회복을 돕는 일이라서 원예학뿐만 아니라 정신의학, 상담심리학, 재활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이해와 적응능력이 필요하다.

### Q. 보람을 말한다면?

학습자의 발전이 눈에 보일 때 느끼는 보람이 크다. 치매초기 어르신들이나, 손 근육 사용이 어려운 지체부자유 학생들, 주의력결핍장애 아동까지 다양한 대상이 수업에 참여한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정서적으로 행복해하시고 신체적 활동이 조금씩 활발해지며 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때 감사하고 보람을 느낀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 꿀팁 대방출

## “나만의 마스크, 직접 만들어 써요”

이제는 필수품이 된 마스크. 앞으로 코로나19가 물러나고 상황이 좋아진다 해도 미세먼지에 항상 노출되고 있는 한 마스크의 수요는 여전히 많을 것이다. 최근 면 마스크에 정전기필터(MB필터)를 끼워 쓰면 KF80 보건용 마스크만큼 방역효과가 있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이 있었다.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쓰고자 하는 열풍이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마스크를 손쉽게 안전하게 만들어 쓸 수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만들려면 정전기필터 원단, 면 원단, 와이어, 마스크 끈 등이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내려 받거나 자신이 고안한 도안에 따라 천을 이중으로 만들어 정전기 필터를 재단하여 끼운다. 코 부분에 와이어를 끼울 자리도 만든다. 마스크 끈을 양쪽 귀부분에 박으면 완성이다. 안감과 겉감을 이을 때 접착제를 사용하면 호흡기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손바느질이나 재봉틀로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

면 마스크를 세탁하는 일이 번거

롭거나 만들기 힘들 경우에 부직포 원단으로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준비물은 부직포 원단, 정전기필터 원단, 와이어, 마스크 끈 및 의료용 테이프 등이다. 부직포 원단을 마스크 모양으로 접고 코 부분에 와이어를 끼워 접은 후 의료용 테이프로 붙이면 된다. 고무줄과 정전기필터도 마찬가지로 의료용 테이프로 붙인다. 이때 의료용 테이프로만 붙이는 것이 불안할 때는 먼저 스테이플러로 고정시키면 된다.

마스크를 직접 만들 때 손과 재봉틀 등 도구와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 정전기필터를 마스크 크기에 맞게 잘라 끼워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와이어를 끼워야 마스크가 얼굴에 밀착되고 안경을 쓸 경우 김 서림이 덜 하는 효과가 있다.

마스크 만들기 열풍이 불면서 재료 구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정전기필터와 같은 공법으로 만든 빨아 쓰는 위생행주가 있다. 이것을 정전기필터 대신으로 끼워 써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와이어를 구하기 힘들면 빵 포장용 와이어를 활용할 수도 있고 고무줄을 마스크 끈으로 쓰면 된다. 기존에 사용했던 마스크의 와이어와 끈을 재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살균세정제를 뿌려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는 마스크는 재료에 따라 다시 빨아서 쓸 수도 있고 1회용으로 쓸 수도 있으며 얼굴모양에 맞춰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래도 마스크 만들기가 번거롭고 자신 없다면 기존 면 마스크의 옆 부분을 절개하여 정전기필터를 끼워 쓰는 방법도 있다.

권소희 명예기자\_estateksh@naver.com

# “그래도 봄은 왔어요” 봄맞이 대청소 및 옷 보관 요령



길고 어려운 코로나19와의 싸움, 아직 마음 놓을 때는 아니지만 찬란한 봄이 왔다.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대청소를 하고 두꺼운 겨울 옷은 정리해 넣어놓고 봄에 어울리는 옷들을 꺼내며 봄맞이 대청소 및 옷 보관 요령을 알아보자.

## 거실 청소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하고 높은 곳의 먼지부터 닦아준다. 바닥에 떨어지는 먼지를 청소기로 청소한 후 물 걸레질을 한다. 가죽이나 인조가죽 소파는 마른 걸레로 먼저 닦고 가죽전용 로션으로 닦아준다.

## 안방 청소와 침구류

옷장 틈새나 윗부분은 청소기나 젖은 신문지를 이용하여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긴 막대에 스타킹을 감아 옷장 위를 훑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 옷장도 그렇지만 붙박이장은 벽과 가구의 틈새가 좁기 때문에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침대 매트리스는 젖은 고무장갑을 이용하여 먼지를 먼저 쓸어낸 후 중성세제를 희석한 물로 살짝 닦아내고 충분히 건조한 후 커버를 씌운다. 이때 헤어드라이기의 뜨거운 열을 매트리스에 씌어주면 진드기와 세균제거에 도움이 된다. 극세사 및 물세탁 가능한 양모 침구류는 중성세제를 써서 울 세탁코스로 세탁한 후 잘 말려 보관한다. 거위 털이나 오리털 침구류는 2~3년에 한 번씩 세탁소에 맡기고 그 외는 일광소독을 한 후 보관한다. 침구류를 보관할 때는 방충제와 방습제를 사이사이에 끼워두어야 한다. 세탁이 불가능한 베개 솜은 베이킹 소다를 뿌린 후 털어내어 세균을 없앤다.

## 주방 청소



청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 어려운 곳이다. 먼저 환풍기 커버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서 주방세제를 키친 타월에 묻혀 20분 이상 불린다. 청소용 솔로 싱크대에서 세척한 후 충분히 말려서 제대로 끼워야 한다. 가스레인지와 인덕션 및 싱크대의 얼룩은 물과 베이킹 소다를 2대1로

섞어서 닦으면 된다. 이때 인덕션은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야 흠집이 나지 않는다. 전자레인지 내부와 냉장고도 같은 요령으로 청소한다. 냉장고 내부를 청소할 때는 물, 베이킹 소다, 식초를 5:1:1의 비율로 섞어서 닦으면 소독효과와 함께 냄새까지 제거할 수 있다.

## 욕실 청소



욕실의 거울은 샤워 후에 잊지 말고 서린 김을 수건으로 잘 닦아두면 된다. 수도꼭지와 샤워기, 수건걸이 등 스테인리스를 반짝이게 하려면 매직폼 또는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욕실 타일의 곰팡이는 베이킹 소다와 물, 식초를 섞어 부어놓은 후 30분 후에 행구면 사라진다. 또 실리콘의 곰팡이는 락스를 적신 휴지를 올려두고 몇 시간 놔두면 사라진다.

## 방충망과 창틀 청소

방충망은 떼어 신문지를 살짝 적셔 붙이고 분무기로 중성세제 희석액을 뿌린 후 30분 뒤에 신문지를 떼어내면 먼지가 제거된다. 만약 방충망을 뗄 수 없다면 비오는 날에 같은 요령으로 청소하면 좋다. 창틀의 먼지는 굵은 소금을 뿌려두고 스타킹이나 천으로 닦아주면 먼지가 제거된다. 신문지를 잘게 찢어 물에 적셔 창틀에 꼼꼼히 끼워두고 30분 정도 두었다가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 옷 보관

겨울옷의 대명사인 패딩은 집에서 세탁이 가능한데 울 삼푸나 다운의류 전용 중성세제로 손세탁을 하거나 세탁기의 '울코스'나 '섬세코스'로 단독 세탁한다. 이때 옷의 단추나 지퍼 등은 모두 잠금 상태여야 한다. 다운의류를 말릴 때는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눕혀 건조해야 충전재의 쓸림을 막을 수 있다. 패딩을 걸어서 보관하면 충전재가 아래로 쓸릴 수 있고 압축해서 보관하면 충전재의 숨이 죽

어 보온기능이 떨어진다. 신문이나 얇은 종이를 끼워 접어서 상자에 넣어 보관하면 좋다. 요새는 냄새나지 않는 방충제가 많으니 같이 넣어두자.

모직코트는 반드시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통풍을 한 후 옷장에 걸어둔다. 이때 세탁소의 비닐은 반드시 벗겨야 한다. 겨울모자와 두꺼운 양말 등은 상자에 따로 구분하여 넣고 나중에 찾기 쉽도록 라벨을 붙인 후 옷장 높은 곳에 올려둔다. 겨울 니트도 재질에 따라 구분하여 울삼푸로 물세탁하거나 드라이클리닝을 한다. 차곡차곡 개거나 돌돌 말아서 보관하되 방충제를 사이사이에 넣어두자.

옷장 정리를 하다보면 항상 옷장의 공간이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옷을 걸 때 옷걸이를 통일하여 같은 방향으로 걸면 더욱 많은 옷을 걸 수 있다. 또 비슷한 소재와 기능의 옷을 모아서 걸면 찾기가 쉽다.

권소희 명예기자\_estateksh@naver.com

**옷장정리 TIP**

**옷장 정리의 나쁜 예**  
길이를 고려하지 않고 막 걸어 놓은 옷장

**옷장 정리의 좋은 예**  
짧은 옷에서 긴 옷 순서대로 걸면 남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 시민기자가 간다!

마을을 대표하는 생생마을기자단, 초·중·고·대학생으로 이뤄진 학생기자단, 특색있는 글솜씨를 가진 SNS시민기자단이 전하는 안산시의 생생한 소식. 안산시 시민기자단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기사 제목 좌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기사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들의 핫 플레이스를 꿈꾸며 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

2006년 문을 연 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댄스 동아리, 봉사 동아리, 로봇코딩 동아리 등 다양한 주제로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컴퓨터, 보드게임, 노래방, 북카페, DVD감상 시설 등이 있어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도가 높습니다. 2020년에도 동아리 활동은 계속되며 그 외에 마을 행사도 기획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에게 힐링과 경험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 권성혜 생생마을기자



## 아르바이트는 역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대학생 행정 체험연수는 시청, 아동복지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고 업무가 어렵지 않아서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대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연수 기회를 주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표로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대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에 근무 중인 대학생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 전지환 SNS시민기자



## 빵 먹으면 자동으로 기부되는 '도깨비 잔칫날'

기부에 관심도 있으면서 평소 빵을 좋아하시거나 '빵지순례(맛있는 빵집 찾아 다니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솔깃하실 이야기입니다! 바로 '도깨비 잔칫날' 기부 행사인데요. 매월 12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좋은아침 베이커리'에서 판매된 빵과 음료의 수익금 전부를 안산희망재단을 통해 그룹홈 청소년들의 자립 기금으로 사용하는 행사입니다. 약 2천7백여만 원 이상의 모금액이 모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빵지순례자들이 많이 방문해서 더 많은 금액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 선경미 학생기자



##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단원보건소에 가다

단원보건소 1층에는 일반진료와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실이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나 전염병 질환을 검사하고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진료비도 2천 원 내외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방진료는 말 그대로 침을 맞거나 한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방진료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1~3급)분들은 이용시 무료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 이재만 학생기자



## 안산시 유튜브 수입은? 안산시 유튜브 Q&A!

안산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인 유튜브 채널들에 비해 '공공기관 유튜브'라고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편이 어느 정도 있어서 기대를 안했는데 생각보다 유용하면서 재밌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평소 궁금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산시청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영상 제작과정, 채널 수익금, 안산시 유튜브의 매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 이예은 학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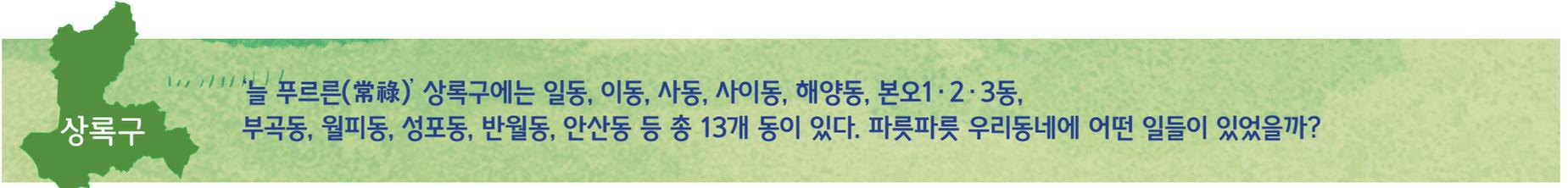


## 우리가 꿈꾸는 직업 탐방 이야기 초등학교 교사가 궁금해

'내 꿈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지?' 라는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또, 꿈꾸는 직업이 어떠한 업무를 하고 또 어떠한 보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잘 모르는 청소년도 많죠? 이러한 궁금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많은 직업 중 '초등학교 교사'란 직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려주실 분은 초등학교 교사이자 약 36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래퍼 달지, 이현지 선생님입니다.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 최혜원 학생기자





**본오2동**

**본오2동 직능단체, 샘골로 먹자골목 방역 및 소독**

상록구 본오2동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3월1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샘골로 먹자골목 방역 및 소독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최근 안산에 발생한 확진자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얼어붙은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데 일조하고자 관내 대표 상업지역인 샘골로 먹자골목을 집중 방역했고 상인과 주민들에게 코로나 행동수칙 홍보물도 배부했다.

박계화 주민자치위원장은 “본오2동에서 가장 변화가인

샘골로 먹자골목을 직접 방역함으로써 주민과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일조한데 큰 보람을 느끼며, 더 이상 안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호덕 본오2동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오2동 단체원들이 힘을 모아 방역에 힘써주어 대단히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청사 내 방역과 코로나19 행동수칙 홍보 등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본오2동행정복지센터(031-481-5505)



**부곡동**

**부곡동 공직자들, 코로나19 방역 자원봉사 실시**

부곡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가를 위해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면서 졸업식 등 각종 행사부터 개인 약속까지 취소 또는 연기돼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부곡동은 관내 위치한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청정 부곡동, 코로나19 zero 상가’를 만들기 위해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방역활동은 동 차원의 방역활동

이 아닌 퇴근 후 이루어진 자원봉사여서 그 의미를 더했다. 박병호 부곡동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손님이 많이 찾는 저녁시간에 방역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며 “귀중한 개인 시간을 할애하며 방역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곡동을 비롯한 안산시 25개 동행정복지센터는 방역 물품을 무상 대여하고 있다. 분무기는 1회 2시간 이내에 예약제로 무료로 대여하며, 소독약 또한 최대 2L를



무상 제공한다.

문의 : 부곡동행정복지센터(031-481-5468)

**월피동**

**갑작스러운 비에도 우산 걱정 없어요...양심우산 무료 대여**

상록구 월피동행정복지센터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우산을 무료로 빌려주는 ‘양심우산’ 대여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양심우산은 월피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배려하고 공공물품에 대한 소중함을 시민 스스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시민 청렴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양심우산은 갑작스레 내리는 비나 눈 때문에 우산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고 사용 후 5일 내에 자율적으로 반납하면 된다.

임종현 월피동장은 “양심우산은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산하는 매우 뜻깊은 시책이 될 것”이라며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우산 사용 후 꼭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월피동행정복지센터(031-481-5529)



**안산동**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파김치 나눔, 감자심기 행사**

안산동새마을회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 하루 세끼 반찬이 걱정되는 노인, 장애인 등 20세대에 ‘사랑의 파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사용한 파는 새마을회원들이 안산동 관내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것이며 대부분의 양념도 회원들이 정성껏 키운 재료로 담가 마음과 정성이 더 크게 전달됐다. 강경자 새마을회장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 및 장애인은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식사를 해결해 매일 반찬이 걱정되는 상황으로 새콤달콤하게

만든 파김치로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서 ‘사랑의 파김치 나눔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3월14일에는 관내 휴경지에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감자 150kg을 심었다. 이날 안산동 새마을회원 20여명은 구슬땀을 흘리며 장상동 유휴지에 감자를 심었으며, 7월경 수확하게 될 감자는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문의 : 안산동행정복지센터(031-481-5459)





##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 와동

## 청소년이 꿈꾸는 안전한 사월을 만들어요

2014년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안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며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피해지역인 와동, 선부3동, 고잔동에서 안전에 대한 여러 활동이 일어나고 그 중 하나가 와동의 '청소년이 꿈꾸는 사월'(이하 청꿈사)이다.

청꿈사는 2014년 1월1일 와동에서 활동하던 학부모 봉사단이 청소년을 위한 봉사단체 '한국NGO레인보우의 안전지회'를 설립하며 시작됐다. 같은 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스스로 지키는 안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고민과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하며 학교 안에서의 봉사를 넘어 더 적극적인 자발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이후 2018년 '한국NGO레인보우'에서 '청소년이 꿈꾸는 사월'로 단체명을 변경하며 청꿈사가 가진 지향점을 나타냈다.

청꿈사는 2015년부터 '안전한 통학로만들기' 협의체로 활동하며 스쿨존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환경 만들

기에 동참하고 있고 그간의 활동으로는 ▲캠페인활동(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생명존중, 안전 등 예방캠페인)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활동 ▲스쿨존 보안관 활동 ▲416 관련 활동 등이 있다.

또한, 안산형 안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지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레디액션(READY ACTION)'이라는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키트를 개발하여 지역 사회 곳곳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안전의 보편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의 안전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해온 청꿈사는 지난해 (주)안전누리교육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더 큰 보폭을 내딛고 있다. 더불어 한국여성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청꿈사는 ▲안전캠페인 진행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 ▲와동 통학로 안전사업 등을 추진하며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한다.



진임순 청꿈사 대표는 "아픔을 기억하는 작은 씨앗 활동에서 오늘까지 오는 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이라는 말 뒤에 늘 함께하는 청꿈사가 되도록 생명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 2020년도 청꿈사의 다양한 도전을 응원하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의 : 청꿈사(031-504-5992)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 원곡동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익명의 기부와 착한 건물주

안산시 원곡동에 거주하는 익명의 시민이 지난 3월12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원곡동행정복지센터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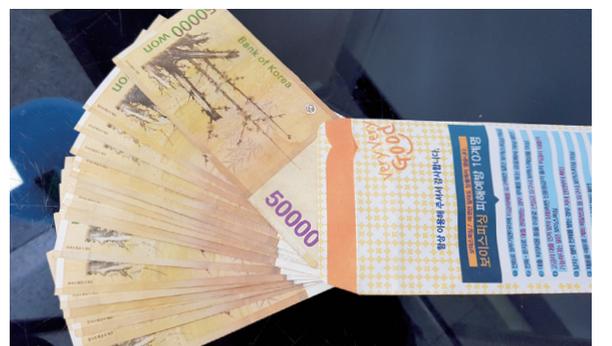
이 시민은 "본인은 중국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어 조금의 도움이 되고 싶다"며 본인의 이름이나 정보에 대해선 한사코 말하길 꺼려했다. 기부금은 경기도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용 물품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통 분담을 나누고자 안산시 원곡동 외국인 밀집지역의 건물주 김용환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원곡동 826-17)에 거주하는 15세대 세입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3월 중 한 달 월세를 각 세대 당 10만원을 감면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원곡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정모씨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부동산중개업 등 많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인데 집주인이 한 달 월세를 감면 해줘서 사정이 어려운 외국인 세입자에게 도움이 돼 정말 고마워한다"고 말했다.

원곡동 관계자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악재 속에 주민들이 합심한다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원곡동에 소유하고 있는 '착한 건물주' 사례가 많이 나



와 훈훈한 미담사례가 널리 전파돼 위기 극복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원곡동행정복지센터(031-481-6688)

### 선부3동

## 초등생의 손편지와 선행 "대한민국 힘내세요"

선부3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월18일 오후 5시 경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돼지저금통과 직접 쓴 손 편지를 함께 전해주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손편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서 학교를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힘내세요"라고 적혀있었다. 아

동은 익명으로 성금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신분을 밝히지 않고 17만3천570원을 기부했으며 이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되어 선부3동의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상관 선부3동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준 아동과 어머니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주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선부3동행정복지센터(031-481-6928)

물품 기부 또는  
성금 모금에  
관심이 있는 시민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대상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 031-481-3190	안산시 복지정책과 031-481-3025
코로나19 관련·저소득층 대상 동 행정복지센터	

## 성호기념관에서 성호박물관으로... 안산 최고(最古)박물관의 변신

### 새롭게 개편 된 성호박물관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용 가능



지난 2월 25일 안산 성호기념관이 성호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무료입장으로 전환되었다. 2002년 개관한 성호박물관은 안산시 상록구 이동 성호공원 내에 위치한 안산시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다. 개관 당시 성호기념관은 지상 1층, 지상 2층, 연면적 1천480㎡ 규모의 2층 박물관이었으나 2013년에 이미 성호사설, 성호문집 등 실학자 성호이익의 삶과 학문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유물 2천800

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1층 전문박물관으로 승격되었다.

하지만 '기념관'이라는 이름 때문에 대외적 활동이나 박물관 외부 사업 시 2층 박물관으로 인식되거나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박물관'으로의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시민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되어져 왔다. 작년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열어 결정된 명칭변경은 시의회의 의결 후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2월 25일 확정되었다.

성호기념관에서 성호박물관으로 명칭변경 이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유료였던 입장료가 다른 국립박물관처럼 무료로 바뀐 점이다. 아직은 건물 외벽에 임시현수막으로 '성호박물관' 명칭변경을 알리고 있지만 4월에는 정식으로 간판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성호박물관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을 일부 개편하고 5월 하순쯤 재개관하여 바뀐 이름에 맞는 새로운 모습

과 전시물로 시민을 맞이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도 유아, 초등학생, 성인대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안산시 관내 박물관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임시휴관중인 상태라 '심각'경보 해제 시 까지 박물관 관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긴 겨울을 지나 봄이 왔듯이 안산시민 모두 협력하여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 새롭게 변신한 성호박물관에서 안전한 관람과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안산시민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관람객들이 성호박물관을 찾아 안산의 역사문화의 중심이자 안산 최고(最高)의 박물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문의 : 성호박물관(031-487-2574)  
김선영 명예기자\_rimmom@korea.com

## 안산도시공사, 공공시설 휴관 장기화 ... 강사·임차인 등 생계보호 대책 추진

### 취미교실 강사에도 휴업수당 지급, 공공시설 임차료는 납부 유예

안산도시공사는 코로나19 확산과 공공시설의 휴장 장기화로 인한 생계보호 대책으로 파트타임 및 개별계약 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시설 내 매점 등에는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실시한다.

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위해 지난 2월8일부터 수영장과 체육관을 비롯한 31개 공공시설을 휴장한지 40여 일이 지나도록 장기화됨에 따라 직원 및 시설 임차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영강사를 비롯한 파트타임 근로자와 취미교실 개별계약 강사(비율제 강사)들이 지원 대상이다.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78명의 파트타임 강사들에 대해서는 평균 급여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한편 82명의 개별계약 강사(비율제 강사)들에 대해서도 20일 동일한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개별계약강사는 취미교실 등 회원이 내는 강습료 일부

를 수익으로 하는 사업소득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사는 코로나19 휴장 장기화로 취미교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개별계약 강사에게도 긴급 생계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휴업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재난 시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한시적 인하하는 내용의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안산시가 휴업점포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 임차기간 연장 등을 정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안산시의 감면율 등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시설 내 점포 임대 소상공인의 긴급생계 대책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임시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은 상반기 임대료 납부 예정 임대시설인 안산 골프 연습장 골프샵, 선부체육관 매점 등 9곳으로, 해당 기간 동



안 1억 2천만 원의 임대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공공시설 휴장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간제 근로자와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작은 대책"이라며 "감염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과 공공시설 임차인 등에 대한 생계대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도시공사(031-481-4834)

##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수제 생강청 전달... '코로나19 이겨내자' 응원

### 면역력 증강 도울 직접 만든 생강청 500여개(350ml) 기탁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취약계층과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에게 전해달라며 면역력 증강에 좋은 수제 생강청 500여개(350ml)를 안산시에 기탁했다.

지난 3월5일 안산시에 전달된 생강청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 30여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와 지역 자원봉사자, 취약가구 어르신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정성들어 마련된 것이다.

홍희성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

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몸에 좋은 생강청이 취약가구 어르신과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의 면역력 증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생강청을 전달받은 시 관계자는 "몸에 따뜻한 기운을 북돋아 주고 항산화 효과와 살균작용이 뛰어난 생강으로 만든 음식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힘이 전해졌으면 한다"며 "힘든 시기지만 지역사회의 응원과 시민여러분의 자발적 위생수칙 준수로 질병확산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든 생강청은 취약계층이 많은 행정복지센터 7곳의 홀몸어르신들과 상록수·단원보건소,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도병원 등 5개 선별진료소 및 방역·소독활동 봉사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문의 : 안산시자원봉사센터(031-411-1365)

##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 제260회 임시회 중 현장활동 실시

### 내실 있는 심사 위해 각각 안건 관련 현장 방문



기획행정위원회가 원시동 근로자러닝센터 예정지를 방문한 모습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가 제260회 임시회 중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각각 지난 3월5일과 6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임시회 심의 안건들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현장을 찾았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미희)는 3월6일 단원구청 내 북카페 조성 현장과 원시동 근로자러닝센터 예정지, 사동 고등학교 시설부지 등 3곳을 잇달아 둘러봤다.

단원구청 북카페 조성 현장을 방문해서는 구청 1층 로비에 조성될 북카페의 위치와 면적을 파악하고, 구청 측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게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성실 공사를 당부했다.

위원들은 근로자러닝센터로 이동해서는 입주기업근로자 특화사업으로 산업단지공단 경기지부가 추진 중인 센터 조성 사업의 내용을 보고 받은 뒤, 면적 확보와 공간 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짚었다.

사동 고등학교 시설부지를 찾아서는 부지 내 자연적으로 조성된 돌레길을 따라 걸으면서 산재해 있는 봉분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환경적 여건을 판단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명훈)도 대부북동 우리 밀 대부단지와 화성시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부지, 사동 한양대 ERICA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현장을 방문해 해당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살폈다.

첫 방문지로 우리 밀 대부단지를 방문한 위원들은 우리 밀의 재배 상태와 납품 경로 등을 점검한 것은 물론 이곳에서 생산되는 밀이 칼국수용 생면으로 제조돼 지역 식당에 공급되는 만큼 품질 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 공사 현장으로 이동, 안산과 화성, 부천 등 6개 시가 참여해 13기에 이르는

화장시설 등을 짓는 이 사업에 대해 보고 받고, 사업 기간 내에 공사를 마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한양대 ERICA 캠퍼스에서는 학교 부지에 도시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혁신파크 조성 사업이 지역 사회에 미칠 파급 효과에 큰 관심을 드러낸 가운데 최근 시와 대학이 MOU를 체결한 종합병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이보다 앞선 3월5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나정숙)가 초지동에 위치한 택시 쉼터와 성포동 성포광장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택시 쉼터에서는 올해 초 준공한 이 건물의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여성 운전자를 위한 휴게 공간이 설치돼 있는지와 시민들에게 개방해도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파악했다.

이어 신안산선 복선전철 중 성포역이 들어설 성포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위원들은 신안산 복선전철 공사의 안산시 구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성포역의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위치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 2020년도 1회 추경안 등 안건 11건 의결



안산시의회가 3월17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의결하고 16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의회는 앞서 지난 3월2일 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이어 열어 안건을 심사한 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총 11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실시했다.

본회의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명훈)는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과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하고,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은 원안 가결했다.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나정숙)는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미희)의 경우 3개 상임위 소관 업무별로 나눠 심의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문복위원회와

도환위원회도 이 안건을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예산안 외에 심의 안건이 없었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바우나)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진)는 4개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수정안 가결 및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회 추경예산은 시가 제출한 2조881억7천992만3천원에서 1천22억460만원이 감액 조정됐다.

이날 안건 의결에 앞서서는 이기환 의원과 현옥순 의원이 각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주택가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된 '안전 소화기함' 등의 운영 개선 방안 수립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규 의장은 폐회에 앞서 "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재정지원정책 등 안산에 맞는 지원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의회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정돼 있던 안산별망어촌마을과 사리포구 문화 재현 정책 등에 관한 나정숙 의원의 시정질문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에 집중하고 있는 시 집행부의 행정력 분산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대체했다.

## 안산시의원들,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확진자 동선 중심으로 방역 실시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활동에 힘을 보탰다.

시의회 김동규 의장을 비롯한 한명훈 문화복지위원장과 이기환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박은경, 유재수, 추연호, 김진숙, 이경애 의원은 지난 3월7일과 8일 각각 시의 방역 활동에 참여했다.

이들 동안 방역활동에 참여한 의원들은 방역복을 입고 소독 장비를 이용해 단원구 와동과 상록구 이동 중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곳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에 나섰다. 의원들은 지역을 나눠 방역활동에 임하면서 방역의 효율을 기하기도 했다.

김동규 의장은 "지난 3월7일 안산에 확진자가 처음 발생해 시민들의 심려가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안산시의회도 시 집행부를 도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께서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 초기부터 발생 현황과 마스크 판매처·5부제, 확진자 동선 등 관련 정보를 SNS로 공유하면서 시민 불편 해소 및 감염증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나비잠: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 우리집 막내, 처음 맛 본 짜장면

아기이름: 임예하(딸)    출생년월: 2019년 9월    태명: 복덩이

예하가 태어난지 16개월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첫째 언니 한마디~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둘째 언니는 탕수육을 먹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가족은 짜장면과 탕수육, 짬뽕 등 여러 음식을 시키고 뽀로로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오고 아이들에 설렘은 극에 달했다.

1호는 아빠, 짜장면이 왔어요~ 2호는 탕수육, 탕수육~ 하며 덩실덩실 춤을 쳤다. 3호는 그저 그런 언니들이 신기한 듯 쳐다만 보고있었다.

드디어 시식타임~ 1호는 짜장면과 탕수육을 2호는 탕수육만 집중적으로 먹는 모습을 본 3호는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짜장면 면을 조금 잘라서 주었더니 그야말로 순삭이었다. 처음으로 맛보는 신세계에 아이의 더 달라는 칭얼거림이 계속 됐고 더 오래 칭얼거리기 전에 한접시에 짜장면을 적당량을 덜어주었다.

3호는 알고 있었을까? 짜장면이 맛있다는걸? 3호는 무언가에 홀린 아이처럼 마치 1호와 2호가 자기 짜장면을 넘보기라도 한다는 듯이 급하게 손으로 먹기

시작했고 어느새 다 먹은 3호는 만족스러운 표정과 귀여운 웃음으로 우리가족에게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가 1호만 있을때도 행복하고, 그 행복은 2호가 생기면서 더욱더 커지고 3호가 생기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었다. 안산시 모든 다둥이 가족 분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임채산(상록구 이동)



## 목련이 필 때면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열고  
하얀 목련이  
속마음을 풀어놓는 4월이다.  
'부지깽이만 꽃아두어도 싹이 난다'는  
청명(淸明)때문일까.  
보고 싶은 그리움마다  
세월 대신 사랑을 심던  
안산의 그 봄 속에서,  
밀물도 썰물도 잃어버린 시화호에  
해조음만 잔 정으로 남는 시간,  
목련이 필 때 마다  
추억은 연민으로 광덕산을 오르는데  
소풍 나온 동심마냥 산객(山客)은 지천이라  
꽃말이 '사랑'이라는 백목련도  
꽃말이 '믿음'이라는 자목련도  
'사랑이자 믿음이며 기쁨'이라는 우리도,  
더불어 기억하는 안산의 4월이다.

·곽필순(前 안산 호원초 교장)

## 강아지풀

주린 배 움켜쥐고  
배고픈 설움으로 견디던 내 조국  
아이들의 키와 꿈도 작디작았지  
  
세상 향해 크게 웃자랐네  
  
세상이 빠르게 변해  
사회는 초고도 성장을 이뤘고  
유전자의 틀을 넘어 아이들도 잘 자랐지  
  
세상이 급변하고 흔들려도  
강아지풀 너는 한결같구나  
변치 않는 그 마음 우리에게 나눠주련

빈 듯하나 속조차 강인한  
변치 않는 근성으로  
주리던 속내까지 읽어봤으면

·이계선(상록구 부곡동)

## 책 읽는 안산 / 4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집에서 즐기는 나만의 취미』

아동



### 100가지 숨은 미로 찾기

저자 베키 윌슨 / 출판사 노란우산

『100가지 숨은 미로 찾기』를 통해 집중력이 쑥쑥 자라고 사고력이 팡팡 터지는 100가지 미로를 풀어보세요! 미로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선명한 색감의 그림을 보며 흥미를 느끼도록 안내합니다. 아기자기한 그림 때문에 복잡해 보이고, 난이도가 있어 보이지만, 유아기 아이들은 세밀하고 작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척척 풀어낼 수 있다.

청소년



### 소피아의 필라테스 홈트

저자 박서희 / 출판사 리스컴

누구나 쉽게 필라테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필라테스 홈 트레이닝의 맞춤 교과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단계별로 운동할 수 있고,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시간별로 선택해서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여러 가지 여건상 운동하러 나갈 수 없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성인



### 몰입하는 시간의 즐거움

저자 정성희 / 출판사 더블북

다양한 취미를 통해 아주 특별한 나를 만나고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현장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소개했다. 매력적인 취미 이야기와 유익하고 풍성한 정보를 담은 칼럼에 독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지난해 연말에 카카오 브런치북 프로젝트 대상 수상했다.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독자  
투고

## 층간소음



‘쿵! 쿵! 때구르르...’ 아침 8시부터 거실 등이 흔들렸다. ‘거실 등이 고정 되지 않았나?’하면서 의자위에 올라가 확인해 봤지만 생각과 다르게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층간소음일까?’ 내가 알기로 윗집에는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만나서 인사하는 6살 꼬마 숙녀가 살고 있다. 가끔 ‘쿵쿵’하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최근에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벽이 흔들릴 정도로 소음이 커졌다.

하루하루 뉴스에는 코로나19 이야기에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마스크를 구하러 다니러 이곳저곳 헤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였다. 거기에 층간 소음까지 더해지니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

‘직접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관리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괜히 그랬다가 서로 얼굴 붉히게 되면 어찌지? 윗집에서 기분 나쁘다고 보란 듯이 더 쿵쿵거리면 어찌지?’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하면서 고민을 했다. 내 머리는 점점 복잡해지고 우리 집 천장은 곧 있으면 내려앉을 정도로 소리가 점점 더 울리고 있었다.

고민 끝에 관리실에 연락을 해서 최근 상황을 설명드리고 전화를 끊었다. 10분정도 후에 관리실에서 연락이 다시 왔다. 윗집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유치원에 못가는 조카들을 봐줘야 하는 상황이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다

고 했다. 일단 상황 설명을 들으니 조금은 이해가 갔다. 여전히 층간 소음이 들리기는 했으나 이전보다는 작아졌으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해해주기로 했다.

그 후로 얼마 뒤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현관문에 메모지가 붙어있었다. “안녕하세요. 윗집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뛰어서 스트레스 받으시죠? 죄송합니다. 계속적으로 주의를 주겠습니다.” 메모를 보면서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이 점점 누그러졌다. 최소한 ‘아래층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마스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외출이 힘들어지면서 층간 소음이 심해지고 이웃 간에 싸움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른인 나도 집에 계속 있으니 답답한데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은 오죽할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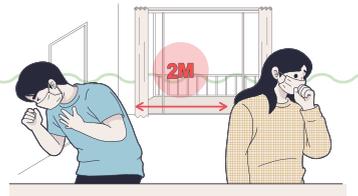
저녁 8시인 지금도 윗집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이전처럼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다. 같은 층간 소음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집 바닥이 누군가의 천장이라는 것을 알고 조금만 더 배려해주고 아래층 사람은 층간 소음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층간 소음으로 인해 다툼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고 우리는 점점 지쳐갈 수 있을 수 있다. 조금 힘들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 이은영(단원구 원곡동)



전문가  
기고

## 코로나19와 일상생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중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진단·치료하고 있다. 그러나 2020. 3. 16. 현재 8,2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 중 75명이 사망한 상황에서 감염병에 관한 법체계가 어떠한지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위 감염병 관리법에서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각종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도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을 누그러뜨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법에 정해진 처벌과 무관하게 ‘신천지’ 등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을 불러온 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는 증오심과 공포만이 사회를 휩쓸고 있다.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니, 그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은 갈수록 커진다. 불편과 어려움은 공포의 등에 업혀 증오와 분열로 치달고 있다. 그러나 증오와 분열이 감염병을 막거나 치유할 수는 없다. 신

천지 등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법적 규정을 넘어선 처벌요구는 비이

성적인 공포만 키울 뿐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 역시 피해자일 뿐이다. 비감염자들이 느끼는 불편과 공포는 감염자들이 느끼는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견잡을 수 없는 확산은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과 증오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미 광범위한 지역감염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이동을 막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도 아니다. 각종 대규모 행사의 취소 또는 연기 등 이성적이고 냉정한 대처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적 행사 또한 예외가 아니다. 경제적 득실을 따져 우리나라나 우리지역은 안전하니 예정된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무모함은 전 국민, 전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특정국가와 지역을 비하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오만의 대가는 감당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인류가 처음 겪는 엄청난 감염병 앞에서 국가나 지역을 넘어선 모든 사람들의 인류애와 협조만이 지금의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김성천 변호사

안산시 시정소식지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독·주소변경 신청

메일 ansannews@korea.kr  
전화 031-481-2042



안산시 시정소식지에서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 개인의 연락처, 주소 및 글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연이 채택 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5만원 이상)는 다른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독자투고 및  
전문가 칼럼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법률상식 / 미담(칭찬) 사례

분량 · A4용지 2/3 이상  
· 관련 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24개월 전후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 A4용지 절반  
· 아기 사진 1장

안산시에 바란다

주제 안산시가 고쳤으면 하는 불편사항 또는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분량 · A4용지 절반  
· 관련 사진

###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PLAY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 투자방향서 체결**

**OBS경인TV (3월 5일)**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 투자방향서 체결

**대한민국을 덮친 코로나19**

**KBS '6시 내고향' (3월 9일)**  
코로나 위기 속 작은 영웅들

**드론으로, 손으로 빈틈없는 소독**

**YTN (3월 9일)**  
드론으로, 손으로 빈틈없는 소독

**코로나19에 힘든 이웃을 위해 팔 걷은 열혈 시민**

**한빛방송 (3월 18일)**  
코로나19에 힘든 이웃을 위해 팔 걷은 열혈 시민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하세요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내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 당 안산화폐 '다운' 50만원 지급
- ◇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75~6) 단원보건소(031-481-6473~4)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상반기 장학생 선발

- ◇ **접수기간** : 2020. 4. 20. ~ 4. 24.
- ◇ **접수처** :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
- ◇ **선발인원** : 424명
- ◇ **문의** : ☎ 070-4400-8579 / 414-0924  
※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 **기간** : 2020. 3. 19. ~ 4. 8.
- ◇ **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공정조세과, 양 구청 세무과 문의
- ◇ **의견제출**
  - (1) 개별주택 : 일사편리(kras.go.kr) 또는 열람장소 방문
  - (2)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감정원 방문
- ◇ **문의** : 안산시 공정조세과(031-481-2193~4)

###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

-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으신 분(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 입증자료(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확인서)
- ◇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우리동네 탄력순찰 신청 안내

- 탄력순찰이란 온·오프라인을 통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주시면 경찰이 참고하여 순찰하는 방식입니다.
- ◇ **신청방법** : 온라인(순찰신문고:partol.police.go.kr) 또는 관할 지구대·파출소 방문

### 4월은 201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4월의 독자 참여 퀴즈

<안산톡톡>에 담긴 이야기를 꼼꼼히 읽으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Q**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4호로 지정된 안산의 가장 오래된 전통 가옥. 표암 강세황, 성호 이익, 단원 김홍도 등 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의 교류장소였던 이 장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흥문당 ② 청문당 ③ 남문당

**Q** 안산 9경 중 한 곳이며, 자연 그대로 형성된 오솔길과 해안길을 따라 조성된 트래킹 코스. 총 8개의 코스로 구성됐으며 광활한 서해의 갯벌과 아름다운 낙조를 즐길 수 있는 길은 어디일까요?

- ① 갈대습지공원 산책길
- ② 안산 호수공원길
- ③ 대부 해솔길



### 퀴즈 응모 방법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디지털 엽서로 연결됩니다. 정답을 찾아 제출해주세요. 응모자 중 2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무작위 추첨 후 개별 문자 발송 (3개월 이내 중복 당첨 불가)



응모기간 : 4월 28일까지

'안산톡톡'을 사랑해주는 시민분들을 위해 2020년 4월 호부터 독자 참여 퀴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퀴즈도 풀고 상품도 응모해보세요!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스트레스

# 건강하게 극복하세요!

## 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난 감염병 스트레스

입원 치료 및 격리 과정, 감염병 위험에 노출됨으로 인해 발생한 감염병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불안과 공포가 커져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의심이 많아져 사람들을 경계해요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져요

###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기**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해요.
-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받기**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힘든 감정 털어놓기**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어주세요.
-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기**  
충분한 수면, 운동, 건강한 식사 등으로 정신건강을 지켜요.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관심 기울이기**  
어린이 수준에 맞추어 감염병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격리된 환자 및 가족의 불안감 스트레스 도와주기**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혹은 그 가족들의 힘든 감정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세요.
- 의료인과 방역요원 응원하기**  
감염병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